

## □ 심사위원 종합의견

이번 2024 독립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에는 소재와 장르, 제작기법의 다양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다양한 소재와 함께 유아동이 아닌 12세, 15세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특히 2D, 3D에 편중되지 않고 퍼펫, 컷아웃 애니메이션이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30~40대의 감독들의 대거 등장이 두드러져 한국애니메이션 저변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업용 애니메이션의 노하우가 축적된 스태프들이 독립애니메이션에 도전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제작일정과 목표, 예산책정의 모호함이 다소 나타납니다. 구체적이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립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한국애니메이션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